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4년 3월호 첫발행 5.25. 통권 18호 발행인 최현숙

함께 가는 길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9회 한국여성대회
‘전진하는 여성, 열리는 사회’ 1994.3
일시: 1993년 3월8일(월)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3

3

짜 임 새

일하며 생각하며 / 2	이경희
또다시 시작하자!	
만나보았습니다 / 4	
한국여성대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황미혜
기획 / 10	
12-18개월 영아프로그램(1)	조선경
특집 / 17	
여연의 93년 사업평가와 94년 사업계획	편집부
글마당 / 26	
덕아소별곡 26	
튼튼이소리터	마산 튼튼이어린이집편
우리들의 목소리 27	
“방앗간에서 일한다면서요?”	권경숙
오손도손의 “봄”	나은미
소식과 소식 / 31	
정보 / 3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 주소록	
지자체교육	
연합회 3월 구비자료, 회지 목록	
편집부에서 / 38	

- # 알아봅시다 / 3 '3.8세계여성의 날' # 새책소개 / 15 좋은 그림책안내
- # 신문스크랩 / 25 30대 직장여성들 공동육아추진 눈길
- #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33 신입아동맞이
- # 불만한 비디오 / 33 “카드로 만든 집”
- # 벼룩시장 / 39

표지사진 설명: 93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제 9회 한국여성대회가 “전진하는 여성, 열리는 사회”라는 주제로 Y.M.C.A에서 있었다. 올해는 어떤 기념제가 있을지...

일하며생각하며

또다시 시작하자!

이경희(사무국장)

“지탁연 따라갈려고 올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별로(?) 없는, 아니 우리를 ‘소 닭보듯’ 하던 어느 단체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단적인 예시라 보여진다.

또한 삼월이 되면서 뜸하던 전화벨 소리가 끊이질 않고 외부인사, 단체 방문과 면접이 일정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탁아문제를 유일하게 고민하고 어렵게 활동을 해오면서도 늘 주변적 인물로 대우받던 우리의 활동이 이제는 관, 민을 통털어 어딜가도 어렵고 곳곳하게 활동해 온 지난 활동의 성과물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94년 보육지침을 분석하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요구하던 많은 내용이 받아들여졌고 지역에서 좀더 단합된 의지로 요구해 들어간다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생겨졌다.

그렇다.!

이제 그동안 힘들게 탁아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들의 활동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일정정도 우리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탁아에 대한 무관심속에서 탁아소를 확대했고 불모지였던 탁아정책을 만들어냈던 우리의 저력과 동지애가 살아있다면 이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만큼 아이들이 처해진 조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부모들의 믿음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탁아소가 또 있겠는가?

아직까지 우리는 문제보다 더많은 지원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또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내년에는 분명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 * * * *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연합회를 떠나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에 와있다. 연합회를 떠나더라도 내 옆에 늘 든든하게 버티고 생활해 나갈 동

료들을 생각하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내가 기혼녀로서 한 아이의 엄마라는 제한적 조건속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 의지보다는 조직적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동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는 한 우리의 활동은 지속,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탁아를 평생 일로 생각하며 탁아교사로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연합회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과 동료들의 힘을 믿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1,2월의 휴식과 고민의 시간은 이제 막을 내리고 꽃피는 춘삼월에 동료의 모습과 아이들의 순수한 눈동자를 믿고 또다시 시작해보자.

알아봅시다 /

‘3.8 세계여성의 날’

올해로 86주년을 맞는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선거권과 노동조합 참여권조차 없이 흑사당해 오던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선거권을 요구하며 자본가와 군대의 총칼에 맞서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벌인 투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동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유해작업 금지, 여성의 단결권 인정’등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바로 그것이 세계여성의 날을 탄생시켰다. 1910년 전 세계의 여성노동자들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여 매년 3월 8일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여성노동

자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한 노동권, 연대를 위한 실천을 결의하는 날’로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선배 여성노동자들은 1920년대부터 여성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결의하는 3.8여성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기념행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이어지지 못하다가 해방후 부활되게 되나 48년 이후에는 탄압으로 다시 그 맥이 끊겼다가 1985년에야 계승되게 되었다. 87년 이후에는 생산의 주인, 역사발전의 주체로 당당히 서기 시작한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서울, 인천, 부산, 부천, 마산 등 전국에서 3.8 여성노동자 전진대회가 개최되게 되었으며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자각과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모아나가고 있다. ★★

만나보았습니다

한국여성대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황미혜(편집부, 문화홍보부장)

장충동의 빨간 벽돌 4층짜리 건물에는 계단 복도마다 입주단체 사무실마다 주황색, 노란색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제법 큰 포스터가 붙어있다.

제10회 한국여성대회, 제7회 한국여성노동자대회 홍보포스터.

한국여성노동자대회는 이미 지난 5일, 고려대학교에서 행사를 치렀고, 편집부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여성대회에 대해 취재를 하기로 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무국장인 남인순씨(37, 사진)를 만났다.

황: 안녕하세요.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서 이달 27일에 있을 한국여성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3.8세계여성의날'에 대해서 그 유래를 설명해주시겠어요?

남: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가 '세계여성의 날'이 86주년 되는 해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 1만5천여명이 그 당시 빵, 그러니까 먹을 것과 선거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선거에 참여해서 표를 행사하는 참정권이 없어서 이를 요구하는 시위였는데 빵을 요구했다는 것은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만큼 열악했는가를 말해주는거지요. 시위의 배경은 그 당시 섬유회사의 여성노동자 140여명이 불에 타죽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에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지역 여성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시위를 벌이게 된거죠.

이듬해인 1909년에도 미국 전체 2만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동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1910년에 3월 8일 을 세계여성의 날로 정해서 세계 각국 여성노동자들이 집회나 기념식을 갖습니다. 각국마다 집회나 기념식의 양상은 다른데, 참정권이나 노동자권리가 많이 인정된 나라는 상당히 축제적인 날로 선물도 주고 받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피켓팅이나 시위형태로 기념하는 것과는 상당히 그 양상이 다르지요.



황: 나라마다 수준과 처지에 따라 기념식이 다르게 진행되는군요. 그렇다면 한국여성대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 적이 있었나요?

남: 한국에서는 85년부터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한국여성대회가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일제때 근우회가 여성대회를 한번 했었고, 해방후에도 한번 대대적인 여성들의 축제형식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이후 여성의 날이 없어졌다가, 말하자면 진보적인 여성세력들이 생겨나면서 85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겁니다.

황: 한국여성대회를 85년부터 시작했으면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했었는지 궁금하네요. 시기가 바뀌면서 여성계에 등장하는 중점사안도 많이 변했을텐데...

남: 한국여성대회의 흐름을 보면, 85년에 처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흔히들 공대위라고 부르던 생존권대책회에서 주최를 했었어요. 그때의 주제는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단체"였습니다. 주로 이야기됐던 것은 기층여성들의 생존권문제를 여성운동에서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거였죠.

86년 한국여성대회는 기층여성들의 생존권지원에 대한, 그 시기의 성도어패럴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톰보이 불매운동 시작을 계기로 동양고무, 백양 메리야스의 부당 여성노동자 해고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87년에는 '민족현실과 여성운동'을 주제로, 여성운동이 기층여성문제만이 아니라 전체민족의 문제로 다가가는 시점이죠. 이 때 여성운동상이 처음 제정되었는데 최초 수상자는 권인숙씨였습니다.

88, 89년도에는 당시 민주화, 민족자주화 문제를 대외적으로 많이 다루고, 90년도 부터는 평생평등노동문제가 제기되면서 탁아문제와 고용안정문제, 성폭력문제가 작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성문제의 흐름을 보면, 90년이후부터 주로 여성권익문제가 여성대회의 주이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황: 여성운동상의 역대 수상자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남: 87년 권인숙씨 이후로 88년 넥스테크 노조, 90년에는 피코노조, 91년 임수경씨였습니다. 92년 박영숙씨와 김학순 할머니가 공동수상을 하였고, 93년에는 중소기업노조

가 수상을 했습니다.

황: 올해 여연의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지역살림의 참일꾼,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여성의 정치의식 20%확보'라고 주제를 상정했는데 올해 한국여성대회 의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남: 올해로 한국여성대회가 10년째로 접어드는데 이번에는 '3월을 여성의 달로 부각시켜보자'라는 취지하에 세계여성의 날 86주년 공동준비위를 구성했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회의 등 4개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27일에 한국여성대회를 하는데 그 주제를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로 잡았어요. 세계여성의 날의 그 기원에서도 참정권을 거론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참정권이 형식상에 불과하고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도 여성의원수가 1%에 불과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겨냥해서 1%에 불과한 현실을 변화시켜보자는 거지요.

외국을 보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도 여성의원수가 전체 13%나 됩니다. 차이가 많죠. 전체 세계적으로 평균 15%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뒤떨어지는거죠. 1%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여성자신도 인식을 못하고 남성들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서유럽은 여성의원수를 전체 30%로 고정해 놓고 비례대표제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서유럽과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충해서 20%를 부각시키게 된거예요. 공천 20%, 비례대표 할당 20%식으로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면 나름대로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지 이번 정치개혁관련법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다 빠지고 민자당에서는 아예 농담처럼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당론차원에서 비례대표제 할당을 결정하였지만 공천활동은 민주당에서도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여론화해나가야 하겠죠.

황: 그렇다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여성의 정치력 강화'라는 내용을 각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담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남: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주장을 할 것입니다. 행사내에서는 주제와 관련하여 추상적이거나 춤공연 등을 통해 표현을 해내고 문화적으로 접근을 시도해보려 하고 있지요.

황: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보죠.

한국여성대회가 이전의 기념행사의 형식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문화행사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대중적인 행사로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는건가요?

남: 올해는 행사를 다른 때보다 회원단체 중심의 기념형식에서 탈피해서 문화행사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의 운동양식도 많이 변해야 하고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많이 상승되어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전달하는 식이기보다는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일치감을 얻자는 취지에서 문화행사를 하게 된거죠.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회원단체 뿐 아니라 관심있는 일반대중도 참가할 수 있으니까 부담없는 틀이라고 여깁니다.

황: 그럼, 한국여성대회에서 보여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되면 참여도가 더욱 높아지지 않겠어요?

남: 일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다룬 모노드라마를 연극인 김지숙씨가 열연합니다. 지난 3월 5일에 개최되었던 여성노동자대회에서도 상연했었는데 대단히 반응이 좋았다고들 하더군요. 일하는 여성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육아부분인데, 이러한 직장을 다니는 기혼 여성의 어려움에 대해서 실감나게 극을 진행합니다. 지탁연 소속 어린이집을 다니는 엄마들이 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노래공연은 이번에 양희은씨가 나와서 엄마들이 들으면 좋아하실 옛날 노래들과 새로 만든 여성노래를 직접 불러줍니다. 그 외에도 안혜경씨와 여성민우회 어머니 노래단 등이 출연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춤공연도 전주지역 춤패인 '해오름'에서 발랄한 동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될 겁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은 인천 북구 기초의원인 홍미영씨가 수상하는데, 이렇게 행사의 전반적 내용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본행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프로그램도 준비했는데 일찍 오면 참여할 수 있어요. 준비된 야외프로그램은, 여성벽화 그리기, 성폭력 예방법 등에 대한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비디오방 운영, 사진전시회 등이 있고 다양한 먹거리장터도 마련하고 있구요. 본행사가 끝나면 강강술래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황: 프로그램이 무척 흥미있게 기획되었네요.

남: 무슨 행사든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번 한국여성대회는 참여가 무척 중요합니다. 기존처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행사에 잘 참여하려 하지 않아요. 와보면 참 좋고 재미있겠다는 생각으로 와야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충분하진 않지요.

황: 한국여성대회의 주제가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면 대중의 호응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구체적인 동원 예상인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남: 한국여성대회 공동준비위에 노조단위가 참여하고 있어서, 회원단체와 노조단체들이 애를 쓰면 700~ 800명 정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회원단체만 동원되면 안되니까 외부홍보를 방송을 통해 하려고 하는데, 여성프로그램에 행사를 알리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매스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황: 행사는 일회적이기 마련인데 이번 한국여성대회가 담고 있는 내용상 사후작업이 중요하게 대두될텐데 그후 이 내용을 사업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다른 구상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남: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좋은 여성후보 보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정치에 대한 기피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먼저 깨야 돼요. 왜 여성이 정치판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에서부터.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족생활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노인, 환경, 탁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지요. 남자들의 경우, 물론 남성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 명예가 크게 작용하고 개인 영리와 관련된 활동을 하니까, 여성들이 나가서 지역살림을 제대로 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여성후보 보내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황: 그럼, '좋은 여성후보 보내기'사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지요?

남: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치적으로 나갈 연배가 된 사람을 설득해서 후보로 나갈 결심을 하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홍보작업이랑 후보물색작업을 하고 있고 후보들이 정해지면 본격화되겠지요.

사실 여성후보들이 나가기 주저하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이 돈이 없다. 당선될 자신도 없다, 자기 주장도 떠오르지 않는다, 라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연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사업본부'를 구성해서 산하에 여성관련공약개발, 재정적 후원 등을 할 수 있는 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준비중이에요.

올해 좋은 여성후보를 지방의회에 많이 내보내려면 먼저 제도적인 차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잘 안되었어요. 예를 들면 정치개혁법에서 주장한 것(공천 20%, 비례대표 20% 반영 등) 같은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제도적으로 우리의 내용을 주장해나가는 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죠. 지금 이미 법이 통과가 되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해서 여성유권자연맹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대사업을 벌일 생각이에요.

황: 단체별로는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남: 현재 산하단체에서 5개 단체 정도 참여하고 있고 이후 가능한 단체들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황: 이제까지 한국여성대회의 내용과 사후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펴 구체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실례가 안된다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남: 예, 그러세요.

황: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가족구성은 어떤지요.

남: 나이는 37살이고 기혼이에요. 9살된 딸과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과 같

이 살고 있죠.

황: 사회활동을 하는 기혼여성들이 집안일까지 하느라 실지 활동하기가 무척힘들잖아요. 시어머니, 시동생과 함께 살면 반찬 한가지라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질텐데 어떠세요?

남: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도 여느 시어머니처럼 며느리가 해드리는 밥을 좋아하시겠지만 오래 같이 보아왔으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막연하나마 저를 이해해주시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잘 해주셔요. 딸아이를 돌봐주신 다거나, 아이가 공부방에 다니기는 하지만,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물론 시어머니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건 아니지요.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근할 수 있는건걸요.

황: 출퇴근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여연에서 상근자로 일을 하게 되었는지...

남: 올해 2월에 있었던 여연총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인준을 받았으니까 여연에서 일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황: 여연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남: 그전에는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창립멤버로 5년간 일을 했습니다.

황: 창립멤버라니까 웬지 더 대단하신 분으로 여겨지는데요?

앞으로 여연에서 사업을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활동 포부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얻어 낸 경험도 굉장히 크실텐데...

남: 연합단체는 산하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인데 산하단체가 취약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연에 온것은 아니지만, 여연이 여성의 모든 사안을 다 다룰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의 주어진 과제에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합단체가 산하단체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산하단체도 연합단체의 강화에 복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3월 27일에 있을 제10회 한국여성대회가 많은 대중들의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남: 지탁연의 많은 식구들을 행사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홍보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한국여성대회가 단지 하나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엄마, 친구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하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내일'로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

기획

12-18개월 영아프로그램(1)

조선경(교육연구부)

* 이 글은 LaVisa Cam Wilson의 <Infant & Toddler>에서 번역,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부에서는 신체, 정서적 발달과 사회, 인지, 언어 발달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교재와 교육활용

걷기는 이 시기 영아들에게 중요한 발달이다. 영아는 장난감에 줄을 매어, 밀거나 당기는 놀이에 매력을 느끼며 물체위에 기어 올라간다. 또한 바퀴있는 장난감을 타고 물체를 반복해서 잡고 던지고 떨어 뜨린다. 영아는 상상놀이를 하고 놀이를 하기위해 교재를 필요로 한다.

교재의 유형

잡아당기는 장난감	던질 수 있는 부드러운 물체
미는 장난감	거울
트럭, 장난감	인형
낮고 구르는 바퀴가 있는 장난감	퍼펫
기어오를 수 있는 낮은 3개의 계단	퍼즐
블럭	그림책과 카드
물체를 넣고 이동할 수 있는 양동이	종이, 크레용
물, 모래 놀이 장난감과 영역	레코드와 녹음 테이프

영아의 발달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수의 전략

1. 신체발달

영아가 움직이게 됨에 따라 주위 세계가 확장된다. 영아들은 걷고 비틀거리며 걷고 달리고 넘어지고 물체에 부딪치고 주위세계를 계속하여 움직인다. 걸을 때에는 불안정하다. 물체 위에서 걸을 때에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너무 멀리 발걸음을 내딛어 기우뚱거리기도 하며 너무 빨리 걸어서 비틀거릴 수도 있다. 똑바로 서기 위해서 영아는 조정하는 것을 배우고, 근육은 더욱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발달되고 협응적이게

된다.

물체에 도달하고 잡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된 것은 영아가 조작이 능숙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영아는 더욱 능숙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영아들은 지금 물체에 다가가 그 물체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잡은 것을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아가 원하지 않는 장난감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난감을 빼려고 하면 영아의 손가락은 장난감 주위를 짹 짹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손가락의 구부리는 근육은 물체를 놓기 위해 이완되어야만 한다. 근육이 요구하는대로 충분히 이완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 이 시기의 영아는 닿고 잡는데 세련된 조절을 발달시킨다. 그렇지만 손에서 물체를 놓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장난감을 던진다. 팔 운동은 강하지만 손에서 사물을 적절하게 놓지 못할 때에 앞을 향한 운동은 손에 있는 물체를 종종 던진다. 이렇게 물체가 던져지는 것은 어린이 집단 가운데에서는 위험한 것이다.

많은 영아들은 매우 늦은 아침과 오후의 낮잠에서 이른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것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영아를 위해서는 낮잠을 자기전에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제안>

아 동 행 동	교 재	교 수 전 략 의 예
근육조절 운동 높은 에너지는 능동적이고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이 활동을 변화시키고 물체를 가지고 놀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와 활동을 제공하기. 이러한 영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활동을 완수한다. 일과계획에 놀이가 끝나면 청소하고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한다.
일어나 서기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가구, 평평한 표면	영아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가구 아래 서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운동 걷기위해 기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아동이 원하면 기도록 허용한다. 아동이 막 걷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걷기보다 기는 것이 더 빠르다.
혼자 걷기		아동이 원하면 혼자 걷기를 허용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면 손을 잡아줌
도움을 받으며 계단 기어오르기.	계단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난간을 제공하거나 손을 잡아준다.
도움을 받으며 계단 내려오기.	계단	계단을 내려올 때에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난간이나 손을 잡아준다.
물체를 기어 넘기.	낮고 튼튼한 가구, 설비, 상자	낮은 기어오를 수 있는 가구, 설비를 제공하기.

아 동 행 동	교 재	교 수 전 략 의 예
손 엄지손가락 사용	작은 장난감, 크레용, 펜	칠 수 있는 작은 교재를 제공한다. 선택한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사용하도록 허용한 다.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그림, 책, 물 체	지적하기 게임을 한다. 책을 펴고- “나무 를 가려켜 보렴”
손안에서 물체를 옮 기고 바꾸기	작은 장난감	다른 곳으로 장난감을 옮기도록 한다. 손 에 있는 장난감을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한다.
물체 던지기	부드럽고 작 은 장난감	물체를 던질 수 있는 곳에 목표물을 제시 한다.
굴러서 잡는 놀이	큰 공, 작은	마루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공을 굴리고 잡기
손과 눈의 협응 정확하게 이르러 잡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장난 감, 물체	안전하게 닿고 잡고 이동시킬 수 있는 장 소에 장난감과 물체를 제시하기
낙서하기	종이, 크레용	종이와 펜을 사용할 수 있는 평평한 표면 을 제공. 영아가 만든 감탄과 칭찬의 표시 를 하기.
옷입기와 벗기를 도 와주기	단추, 스냅 지퍼	가능하면 많이 허용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면 도와준다.
보기 사람, 사물, 행동보기	장애물이 없 이 볼 수 있 는 공간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한다. 다른 장소에 장난감과 교재를 제시 한다. 교재를 옮기도록 허용한다. 마루에 서 올려다보고 다리 사이로 내려다보고 탁 자아래에서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기
영역 주위를 자세히 보기		주위를 살펴보도록 허용한다. 흥미있는 시 각적 자극을 제공하기
수면 오전과 오후의 낮잠 이 오후 낮잠으로 변 화되기 시작한다. 점 심 식사시간에 잠들 수도 있다.		점심식사를 놓치지 않도록 식사와 낮잠자 는 일정을 조정한다.
식사 세번의 식사		식사시간을 결정한다. 욕구에 따라 개별적 으로 조정한다.
혼자 먹기: 컵, 스푼, 손가락 사용하기	음식, 접시, 스푼, 컵	가능하다면 혼자 식사하도록 허용한다. 도 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준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 어하는 음식 표현하 기		좋아하는 음식을 기록한다. 좋아하는 음식 을 제공한다. 점차적으로 새로운 음식을 소개한다.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섞어서 제공한다.
음식을 덜 먹을 수 있기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매력적인 음식을 조리한다.

2. 정서 발달

영아는 독립적이면서 의존적이다. 자기들 세계의 많은 것들은 아직도 불안한 것들이
다. 많은 과제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보육교사는 정서적인 강화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
고 매우 의존적인 것을 수용해준다. 영아는 독립적으로 되려고 시도한다. 스스로 선택하
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을 중요하다고 확신하려는 정서적인 지지를
필요로 한다. 성취하려는 성장의 감각은 자기 가치의 긍정적인 감정을 발달시키도록 강
화한다.

영아의 화와 분노는 기질적인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다. 좌절적 분노는 어린이의 좌
절을 야기시킨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반응일 수도 있다. 영아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방법
을 취하기 위해 불끈 화를 낸다. 불끈 화를 내는 것은 때로는 무시해야 한다. 이러한 어
린이들은 주의받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불끈 화를 내는 동안 주의를 받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행동을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신에 교사는 불끈 화를 내는 행동이 끝난 직
후에 긍정적인 주의를 제공해야만 한다.

영아는 부정적인 감정을 “아니오”라고 표현하거나 불끈 화를 내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영아의 독립성에의 추구는 요구받은 것과 반대되도록 행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도 있다.

어린이는 성인으로부터 옳고 그른 개념을 학습한다. 영아들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
하고 명칭과 지시에 반응한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구성할 때까지 단어가 독자적으로 자
신들의 행동을 조절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개념은 행동에 대한 성인의 반응을 비교하여
영아들이 계속하여 개정하고 확장하게 된다. 이 연령의 영아들은 행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영아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영아를 가치있는 사람으
로 받아들이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영아를 돕는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능력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시간 동안 일과 시간을 바꾸도록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들이 매우 융통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일과시
간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방안에 다른 장소에 아이들의 의자를 놓는
것은 어린이의 흥미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변화에 적용되는 것이 어려운 것
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울어서 의자를 옮기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이 어린
이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에 반항하는 것일 수도 있다.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제안>

아 동 행 동	교 재	교 수 전 략 의 예
정서적 감정의 유형 행동과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기		영아의 정서에 반응하기
타인의 감정을 인식 하기		일관된 정서표현 #행복-미소짓기와 웃기 #화-단호한 목소리와 웃음이 없 는 얼굴
낯선 사람에 대한 두 려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을 소개하기
흥분과 즐거움 표현		동일한 흥분에 반응하기 예쁜 꽃과 동 물 만지기
유머 감각을 표현		함께 웃기
호의를 보이기		신체적이고 언어적으로 보여지는 호의 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부정적인 감정의 표 현		정직하게 작업하는데에의 선택을 제공 "탁자에 달려갈래? 뛰어갈래?"
화내기		만약 가능하다면 상황을 제거한다. 때 로는 무시한다. 다른 어린이의 활동에 관련시키지 않고 조용히 진행시킨다.
정서를 표현하는 놀 이를 이용하여 갈등 해결	블럭, 인형, 가정 용품, 의복, 장난 감 동물	두려움, 좌절, 안전감,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와 교사에게 의 존과 안전감 찾기		어루만져지고 지지받고 상호작용하고 영아의 요구에 따른 빠르고 지속적인 반응
독립심의 확장		영아가 시도하는 행동을 허용하기 도 움이 없이도 완수할 수 있다면 도움을 주지 않는다.
정서 - 감정의 조절 옳고 그른 것을 배 우기 시작한다.		옳은 행동과 틀린 행동을 언어화한다. 이유를 제시해준다. 영아는 옳고 그른 것을 개념화하기 시작한다.
바라는 행동을 강화 하기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대하여 격려한 다.
기질 활동수준 규칙성		영아의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각 범주 안에는 두가지 행동유형이 있다.
새로운 상황에 반응 으로서 접근이나 철 회		목록은 날마다의 상황속에서 영아를 돕기위한 교재가 제시된다.
일과시간표를 바꾸어 융통성 주기 / 감각 적인 수준의 시작 /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분위기 / 반응의 집약		

다음호에 계속

새책소개

좋은 그림책 안내

* 맛있는 과일

원작 히라야마 카즈코 / 한림출판사 / 2,000원

이 책은 사물 그림책이다. 왼쪽 면에는 실물에 가깝게 그린 과일이 통채로 놓여 있고, 오른쪽 면에는 자른 과일을 그릇에 담아 먹으라고 권하는 그림과 "자, 드세요."라는 글자가 써 있다. 군침을 돌게 할 정도로 그림을 세심하게 그렸다. 면구성도 반복적인 구성으로 반복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사물그림책은 선명하고 실물에 가까운 것이 좋다. 잘 그려진 그림이 사진 그림보다 좋은 이유는 시선을 여러 곳에 빼앗기지 않고 사물그림에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 2세 아동)

*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베르너 홀츠바르트 지음 / 울프 에를 브루후 그림 / 사계절 / 5,000원

어느 날 해가 떴는지 알아보려 땅위로 고개를 내민 두더지의 머리에 어떤 똥이 떨어졌다. 그 똥의 주인을 찾아 여러 동물을 만난 두더지는 파리가 가르쳐준 똥의 주인, 개 한스를 발견하고 개 한스의 머리에 콧감씨 만한 똥을 싸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의 그림책이다. 어린이들이 입에 올리기만 하면 까르르 웃는 '똥'을 소재로 하여 재미 있어 하는 그림책이다.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구성으로, 어린 연령의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똥'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은 아이들을 그림책에 빠져들게 한다. (만 2세~3세 아동)

* 작은 집 이야기

글, 그림 버지니아 리 버튼 / 박정선 옮김 / 네버랜드 / 5,000원

표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화면 한 가운데 입, 눈, 코를 가진 사람얼굴 모양을 한 작은 집 한채가 놓여 있다. 작은 집이 데이지 꽃송이가 흩날리는 언덕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동안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고 한 세월이 간다. 그러던 어느날 작은 집엔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진다. 집앞으로 커다란 길이 나고 빌딩이 우뚝 솟고 자동차와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기 시작한다.

작은 집이 겪는 일련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이들 스스로 작은 집에 닮은 일이 불행인지 행복인지 진단하게 한다.

이 그림책은 사람의 웃는 모습같은 작은 집, 계절의 변화에 따른 풍경과 복잡한 도시의 풍경을 세심하게 묘사함으로써 주의깊게 책을 보게 한다. 어른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만 3세~국민학교 저학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축제

●●●●● 제10회 한국여성대회

“지역살림의 참일꾼,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여성의식 20% 확보!”

- 일 시 : 1994년 3월 27일(일) 오후 12시 - 오후 6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중강당
- 주 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274-2883, 279-6891)
- 주 최 : 3·8세계여성의날 제86주년 기념 공동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기 획 : 여성문화예술기획(584-6048)
- 후 원 : 한겨레신문, 여성신문, 주간내일신문
- 입장료 : 3,000원(*본행사 입장료이며, 야외행사는 무료)

■ 프로그램 ■

- 문화공연 오후 2시-5시, 동국대 중강당
사회 : 오숙희(전 KBS '생방송여성', 현 KBS '인생무대' 진행자)
모노드라마 '일하는 여성' - 김지숙(연극배우)
노래공연 양희은, 안혜경, 민우회어머니노래단
춤공연 "여성을 지역살림의 주체로" - 전주 '해오름'
슬라이드 상영 '한국여성운동의 발자취와 나아갈 길'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
- “가족,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야외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후 12시 - 오후 6시, 야외전당(중강당 앞)
전통공동체놀이 나감굿, 길쌈짜기, 강강술래(극단 '맘판') 공동벽화그리기 “여성의 삶을 화폭에
직접 표현해 보세요” 사진전시회 '구타.성폭력 사슬 속의 여성들', '정신대할머니 그 한의 역사'
비디오방 운영 '여성의 역사' 성폭력예방교육비디오, 정신대 문제, 제주도 절경, 기타 여성관련 영화

여성자료 전시, 판매/우리농산물 전시, 판매/풍성한 먹거리 장터
“이 날 행사장에 무기장난감을 가지고 오시면 통일옷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특집

여연의 93년 사업평가와 94년 사업계획

편집부

편집부에서는 94년을 맞이하여 본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여성단체의 93년 사업평가와 94년 사업계획을 기획, 마련하였다. 올해 지택연 역시 한국여성단체의 사업에 적극 복무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따라서 편집부 또한 한국여성단체의 사업을 보다 충실하게 지원 여러분에게 선전해낼 것이다.

I. 93년 여연의 사업평가

1. 조직의 측면

93년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조직사업의 목표는 지역여성운동 조직화방안을 위한 시도와 과제, 각 부문, 지역회원단체들간의 지도력들의 결속력 강화와 회원단체들간의 결속력 강화와 연대운동의 구심점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1) 지역여성운동의 조직화방안을 위한 시도와 과제

지방자치제를 준비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여성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활동과 지방자치제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재 단체의 상황이 지역여성운동을 모색하거나 시도해 보는 단계이며 재정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93년에 들어와서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 것과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정의 부족, 사업에 대한 기획력과 인력의 부족으로 애초에 상정했던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여성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못했다.

2) 각부문, 지역회원단체들간의 조직결속력강화활동

주로 해당사업내지 회의체계를 중심으로 주요지도력간의 결속력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93년도에는 이러한 주요체계를 중심으로 주요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주요지도력간의 결속력강화(대표자회의, 집행위, 정책과사업위, 지역위)로 설정되었다.

(1) 지역위원회

예정되어있던 단체방문은 이루어졌으나 지역단체간의 사업교류와 지역단체간의 고민과 과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간담회는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하반기에 1회 실시되었다. 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단체가 안고 있는 고민과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합치되는 점들이 더욱 적어지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선정하지 못한 측면에서 기인하였다.

전체의 조직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체의 활동방향에 대한 진로가 모색되면서 1회의 지역위원회와 단체의 진단과 진로에 대한 모색을 위해 지역별로 공동대표와 함께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간담회는 대표들의 지역방문이 회원단체 회원들과의 만남, 사업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 지역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라는 측면에서 호응이 좋았으며, 조직적인 결합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후속프로그램의 설치의 요구도 높았다. 또한 회원단체의 자체진단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여성운동의 전망과 관련한 조직진단의 기회가 되었다.

지역위원회 자체의 간담회는 여전히 93년과 마찬가지로 년2회 정도 개최되되, 간담회에서는 주로 지역단체간의 교류와 경험의 공유, 지도력간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 그외의 단체의 사업과 조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보와 정책, 사업방식, 구체적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94년의 중점사업인 '지방자치와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지역단체에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단체의 특성에 맞게 전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2) 대표자회의

하반기에 들어 안건논의와 함께 주요사안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결합하면서 참여와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대표자회의에 정책토론을 계속해서 결합한다.

(3) 정책과사업위원회(이하 '정사위')

사업교류는 되었으나 시기별, 사안별 주요과제에 대한 논의나 여연의 중장기 조직과제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인식이나 논의 폭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과 정책토의로 잡은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인식이 불명확하고 세밀한 과제를 잡지 못하면서 논의가 피상적인 부분에만 머무른데서 기인하였다. 이는 참여하는 구성원의 잦은 교체와 정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공동의 인식이 미흡한 점과 토론의 내용이 목표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하였다. 또한 사업목표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성원과 단체의 고민이나 과제들이 전체 여성운동의 틀 속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당장의 단체의 운영과 과제해결방식에 우선하면서 모임의 결속력도 저하되었다.

하반기에 들어 여성운동의 조직적인 편제와 관련하여 각 단체의 진로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진로모색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하고 현재 지탁연의 과제와 진로 등에 대한 공유를 한 상태이다.

따라서 94년의 사업과 관련하여 여연에서는 정사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제토론에 대해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여연의 사업보고를 더욱 체계

화하고 사업중 토론이 필요하거나 단체의 집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사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위에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논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3) 여성운동의 주체역량강화

여성운동의 주체역량강화를 위해 과제별, 부문별 위원회의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의 풍부함과 활성화로 설정되었으나, 위원회 자체내의 역량의 한계와 그간의 활동경험이 부문별 위원회로 묶어내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런 이유에서 주부위원회의 구성은 무산되었고 정책전문위원회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나, 여연에서 잡은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참여하기에 애로점이 많다. 현재까지 전문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전문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93년의 사업계획 중 사업으로 외화된 부분은 '정부의 1년 여성정책평가토론회'이며, 그외의 사업은 준비의 부족과 시기의 문제로 인해 외화되지 못했다. 앞으로 매해마다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촉구하는 평가토론회의 실시는 유효하며, 여연의 중단기과제중 전문가와 결합하여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이나 시기별 필요한 과제는 현장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대처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나 체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 과제는 여성운동의 방향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과제나 정책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위촉되고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위원의 위촉시 기존의 학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연구회의 연구자들이 각 파트별로 위촉되어 전문가와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 선전의 측면

1) 92-93년 2개년간의 중점사업

성폭력특별법 제정에 대한 높은 대중적 호응도를 토대로 법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여 정부로 하여금 부족하나마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성문화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큰 물줄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재판싸움을 잘 해 나가는 것과 아울러 사회적인 문제로 처음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성희롱문제에 대한 여론을 보다 증폭시켜 냄으로써 법제도적 근절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2) 노동위원회

파견법 제정을 94년으로 연기시키는데 기초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이 과정에서 민우회와 서울여성노동자회의협의회가 법적대응과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을 전담하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직적 근거를 확보하였음을 그 주요성으로 삼을

수 있다. 생리휴가 등 모성보호 조항의 축소에 대한 경제계, 정부의 움직임에 세기를 박는 데도 현장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파견법 이외에 현장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간제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자나 노조와의 연계를 통한 실태조사의 어려움, 전문연구역량의 부재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는 전체와의 연대과정에서는 i) 동일사안이라도 여성노동의 실태, 개선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강조하지 못한 점, ii) 일상적인 결합이 아니라 사안별 결합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전체적인 운동의 방향과 정부 등의 노동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대응력이 뒤떨어지는 점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전체운동과 조직적 연대모색, 정부노동정책에 대한 발빠른 대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연구역량과의 일상적이고, 긴밀한 연대를 통해 연구성과가 시의적절하게 실천활동에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권익연대사안

남녀평등한세계모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여성의 공동연대 사안으로 공동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유효했으나, 공동대응사안을 지속적으로 관철해내는 주동역량의 모호함등은 시기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인 대응으로 끝나는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향후의 여성권익 공동연대사안은, 주동역량을 중심으로 편재해 나가면서 사안별로 관련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력방식에 대한 합의까지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4) 여연 내부사업

정세의 흐름과 관련하여 관련 회원단체의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특히 갈수록 여성운동 전반의 정책적 대응력이 보다 신속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단위의 관련사안을 넘어서는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과 결합이 요구된다.

5) UR문제

전국민적 사안이자, 회원단위 내부가 UR관련 공동대책위에 결합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단체의 전체적인 결합력은 너무나 저조하였다. 94년도 국회 비준 동의 거부를 앞두고 UR문제에 대해 회원단체별로 보다 자발적인 관심과 결합이 요구된다.

II. 1994년도 사업방향과 사업계획

< 1994년도 사업방향 >

1. 중점사업: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방자치 제 2기를 맞이하여 여성은 유권자의 절반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주권의 대표성은 1%를 넘지 않는다. 이에 여연은 '94년도 중점사업으로 "지방자치와 여성정치참여 확대"로 선정하고 여성주권의 대표성을 확보해 내기 위한 제 활동을 전개한다.

1) 지방의회의 여성주권 대표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지방의회진출을 위한 여성후보 발굴과 후보지원사업(공동여성정책개발, 선거 전략 공동 개발, 여성후보지원을 위한 문화의 밤등)

2) 지방의회의 여성정치참여확대를 통한 여성주권 대표성 확대하기 상징홍보물 제작

3)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4) "지방의회, 여성정책" 정책토론회

5) 여성정치 지도력훈련사업

6) 선거운동원 훈련교육

7) 지자체 관련 여성유권자 대중교육

2. 선전사업

1) 세계 3.8여성의 날 기념 10주년 한국여성대회 개최

1994년은 세계 3.8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따라서, 3월 한달 내내를 "여성해방, 남녀평등의 달"(가칭)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3.8여성대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적인 문화행사가 가미된 3.8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2) 여성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의 사회제도적 확충을 위한 사업

노동부의 "근로여성복지종합계획" 및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여성의 비정규직고용의 실태 및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제도적 대안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3) 남북여성교류사업,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강화에 적극 결합한다. 아울러 성폭력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여성계의 요구를 최

대한 답아내기 위한 연대활동에 사안별로 결합한다.

4) 95년도 북경세계여성대회 준비작업

5) 군축 및 통일의 과제로서 여성운동의 관점에서의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작업

6) UR문제에 대한 연대활동에 적극 결합한다.

3. 조직사업

1) 회원단체와 여연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사업결합을 강화한다.

중점사업에 대한 회원단체의 사업결합과 사업지도를 강화하며, 사업이 구체화되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결합에 중점을 둔다.

2) 각부문, 지역회원단체들간의 조직 결속력을 강화한다.

각 회의에서 정책토의를 활성화하여 여성운동의 쟁점사안에 대한 공유와 결합을 높이며, 여성운동의 중단기과제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진로모색과 과제를 발굴한다.

< 1994년 사업계획 >

1 중점사업: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1) 사업목표

- 여성의 정치적 진출 확대: 5%-10% 지방의회 여성진출을 목표로 여성단체의 선거대응력을 활성화하면서, 발굴된 여성후보를 중심으로 여성정책 지원의 네트 워크를 형성해 낸다.

- 지방자치시대 여성운동의 확산과 활성화

2. 기층여성운동력 강화사업

1) 94년 여성노동운동 전망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의 물결속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기업과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자본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기업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정책기조는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데, 그 형태는 고용형태의 다변화(비정규직 확대-시간제, 파견법 노동의 확대)를 통한 노동력 조절, 통제의 효율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가사, 양육과 사회활동이라는 이중적 성역할분업에

기초하여 여성노동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평등노동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등, 보호' 논쟁을 확산시켜 평등조항의 부분적인 수용과 기존의 모성보호조항을 폐지(산전후 휴가 90일 확대, 생리휴가폐지, 휴가 축소 등)함으로써 기업만을 유리하게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이와 모순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케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을 단순, 저임금에 묶어두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기업의 노동정책은 결국 장기적으로 i)고용불안의 심화, ii)노동자간의 계층화, iii)근로조건의 악화를 유발하여 국가경제와 장기적 활성화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노동현실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역량을 살펴보면 아직 조직화 수준의 미흡, 정치적 의식화의 부족 등으로 인한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조직화의 강화와 노동단체의 현장 연대강화 등을 통해 시급히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여성노동계는 우선 i)비정규직의 확대규제와 ii)모성보호의 확대, 육아기능의 사회화 등을 과제로 하여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평화통일사업

1) 정세 전망

북한 핵문제로 경색되어 왔던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9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일정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고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여 대화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파악된다. 핵문제가 일단락되면 북한은 우선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조-일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은 남북 정부당국의 쌍방에 대한 시각차(김영삼정부의 대북강경 노선문제 등)에 따라 대화제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운동진영에서는 '새로운 통일운동체 건설'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성화 될 것이며,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서는 현재 남북당국이 제안하고 있는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통일을 가능케하는 '통일방안'의 연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파악된다.

2) 사업 목표

- 통일운동에 대한 여성운동 지도력의 인식수준 고양과 지도력 강화(교육사업)
- 통일을 대비한 여성운동계 내용적 대응력 강화(통일방안 연구 및 토론회)
- 군축, 평화의 정착을 위한 역량 확보 및 대중선전력 강화(방위비 삭감운동)

성명서

- 여성정책심의회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의결
및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월 3일,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이 여성정책심의회의(위원장: 이회창 총리)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여성의 고용안정 및 촉진과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정책안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여성노동계에서는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이 이러한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하는 한편,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고용확대정책, 고용안정정책의 미흡, 현재의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생리휴가의 무급화 등 중요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수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여성노동계에서는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의 개최, 국회 노동위원회, 여성정책심의회의, 국무총리 앞으로 건의문 및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정부의 임기 이후로 미루었던 산전후휴가 12주 확대 등 모성보호조항이 노동관계법 개정일정에 따르겠다고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최종심의단계인 여성정책심의회의에서 유급생리휴가의 폐지 반대 등 여성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노동부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안) 그대로 심의된 것에 대해 여성노동계에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계획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나 뒤늦게 마련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수렴하려는 과정없이 정부와 기업가의 요구대로 그대로 통과시켜버린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정부에서는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해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으나,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는 엄연히 다른 내용의 문제이며 출산휴가는 국제적 수준을 보아도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모성보호 확대가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지 않으려면 모성보호비용의 국가부담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는 국가부담화방안의 내용과 추진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

거기다 법조, 언론, 문화, 교육 등 각계 인물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회의위원들이 여성노동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기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확대를 이루

고자 하는 문민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여성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종합적인 여성노동정책인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여성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1.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리휴가의 무급화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2. 시간제가 아닌 정규직 중심의 고용확대정책, 급증하는 영역, 임시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정책, 주요정책의 조속한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4. 2. 4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신문스크랩

30대 직장여성들 공동육아추진 눈길

30대 직장 여성들이 '공동육아'를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신촌에 대지 50평, 건평 1백평 정도의 2층 집을 전세내 오는 8월 15일부터 공동육아를 시작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인 이들은 대학강사, 신문기자, 방송국 구성작가, 자유기고가, 출판사 직원 등 10여명. 지난해 가을부터 공동육아의 필요성에 공감해 모임을 갖기 시작한 이들은 이달초 서울 서대문구 또하나의 문화 사무실에서 가칭 '신촌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준비모임을 만들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3월초 '신촌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공식 발기인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의 공동육아 계획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보는 문제

로 고민해온 여성들이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마련부터 교육내용까지 스스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으로, 직장이 대부분 마포와 신촌 부근이라 신촌에 '공동육아의 집'을 마련하기로 한 이들은 전세금이 약 1억~1억2천만원 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금은 '육아가 필요한 일하는 여성' 35명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1인당3백만원씩 내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원은 '아이를 함께 키우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여성으로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취지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원 신청은 '공동육아연구회'(715-3859)에서 받고 있다.

공동육아할 아이들은 조합원의 자녀로, 생후 2개월부터 10살까지 50명으로 잡고 있다.

94년 2월 17일(목)자 한겨레신문에서 발췌

글마당

■ 탁아소별곡

튼튼이소리터

- 마산 튼튼이어린이집편 -

♣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것이 항상 예뻐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 지 모르기에 선생님은 항상 '112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발생 2초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므로.

첫번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상철이랑 혜린이 성빈이 녀석들이 '뉘통'에서 세수를 한 것이다. 그것도 풍당풍당 여유를 부리며 헤헤 웃어가며. "에구! 이 녀석들아! 이건 오렌지 물이 아냐! 피부 먹용라는 상란이 없다고!!!"

♥ 어린이집의 깍쟁이 리나!

친구들은 뺨이 익숙지 않아 미나라고 한다. 크리스마스선물도 '업스턱'을 원하더니 오늘도 나에게 '뽀'를 신청한다. 입술의 붉은 업스턱이 리나 입술에 찍혀 붉게 되는게 좋은가 보다. 한참 초기심 많은 다섯살배기의 진짜 모습이다. 뺨을 먹고 난 나를 보더니 "선생님 입술이 없어요" 그러다. 영문을 모르는 은정이는 "여기 있네."라며 내 입술을 가리키는데 리나는 끝까지 없다고 우긴다.

때로는 엉뚱한 질문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보여주는 우리 아이들이 고맙다. 건강한 아이란 결국 자기 감정에 솔직한 아이이므로.

"함께 가는 길"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이번호부터 글마당안에 탁아소별곡과 우리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기로 하였습니다. 탁아소별곡 역시 새로운 기획의도로 각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3월호에서는 이러한 새 의도에 의해 우선 마산 튼튼이어린이집의 회지에서 발췌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다음호부터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직접 아동의 동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우리들의 목소리

“방앗간에서 일한다면 서요?”

권경숙(수원 용기종기 어린이집)

“방앗간에 다닌다면서요?”

수련회가 끝나고 구정 전날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용기종기를 떠나 방앗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방앗간에 다닌다니까 주위의 반응이 다양했다.

“일이 힘들텐데.”

“무리하다가 병나는 거 아니야?”

“떡 좋아한다며? 떡 실컷 먹어 좋겠다.”

“떡김 쪄이면 피부 고와진대.”

한번은 방앗간을 하루 쉬고 아동교육분과 회의를 참석했는데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교육부장 윤정씨가 “방앗간이 체질에 맞다며?”하는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지탁연 교사들이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사실 방앗간에 있는 한달동안 나 자신에게 경제적인 것 빼고도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첫째는 힘을 써서 하는 일이 내 취향에 맞았다.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들이 몸은 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힘쓰는 일을 하니 마음도 편하고 툴툴 내 나름대로 탁아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었다.

둘째는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쉬면서 선희언니에게 듣는 “삶의 지혜”라고나 할까? 연애관, 결혼관에서부터 탁아운동

에 대한 입장정리까지 인생선배로서 탁아운동선배로서 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셋째는 내가 탁아운동과 동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였다. 처음 선희언니에게 “언니, 저 방앗간 일할게요.” 할때는 지탁연에서 직영하는 방앗간에서 일한다기 보다 내 개인적인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단순히 사고했다는 것을 알았다. 선희언니가 애초에 개인적인 의도로 방앗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탁연 제정사업으로 한 것이라면 방앗간은 선희언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탁연 교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탁아일상에도 바쁘고 힘들 교사들 모두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첫째는, 내 사업처럼 관심을 갖는 일이다.

방앗간에 있을 때는 탁아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고민할 수 없다. 하물며 지탁연 중앙 간부였던 언니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소외감을 느꼈을까? 이럴때 지역에서 안부전화나 회지라도 날라온다면 얼마나 반갑겠는가. 한달 있으면서 가끔 지역에서 물품주문 전화가 오는데 단순한 주문 전화라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둘째로, 물품판매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빚으로 방앗간 사업을 시작한 것을 지탁연 교사면 누구나 알 것이다. 갚을 기간이 되어서 돈 마련 때문에 고민하는 언니 모습을 보면

서 장사가 더 잘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 언니는 다른 데보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빚을 갚고 지탁연에 재정지원을 하려면 지역에서 도와주어야 하다고 한다. 실제로 방앗간이 위치한 인천지역에서는 민탁연대가 되어있는 탁아소는 개별적으로 생일떡, 행사떡, 간식을 주문하거나 사러 오는 일이 많다. 다른 지역도 민탁연대가 활성화되면 밀간탁아소에 방앗간홍보를 하면 대량주문이 가능해질텐데.

세째, 지역교사들이 한번쯤은 돌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동강도가 높아서 자원봉사로는 못 쓰겠다는 언니의 말처럼 일이 많고 종류도 많다. “방앗간은 판매업이 아닌 제조업-떡공장-이다”라는 얘기가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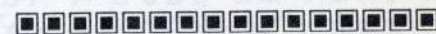
떡의 종류도 찹쌀, 맵쌀로 하는 떡, 쌀, 고추 등 가루 내는 일, 거기에 기름 짜고 김 굽고 여름에 미숫가루 만들기 등 일종의 종합 공장이다. 일 한가지 한 가지에도 손이 많이 가서 김굽는 일을 보아도 김을 건조시키고, 굽는 기계에 넣고 차례로 정리해서 숫자 세서 포장하는 과정까지 무려 5,6번의 손이 간다.

한참 바쁠때 시루 씻는 일과 떡국떡 썰어 담는 일을 하다가 손이 뼉는데 어렸을 때 안 씻어서 손이 튼 일 말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 서글픈 생각에 방에서 물 안 만지는 일을 했었는데 언니가 들어와서는 “언니도 작년 겨울에 손이 뼉는데 연고 바르고 손이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연고를 내밀었다. 일년동안 묵묵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작 며칠 일하고 엄살 피었다는 생각에 미안한 생각과 부끄러움이 교체했다. 내가 언젠가 “지탁연교사들도 이 방앗간일이 얼마나 힘든

가 와서 해봐야돼요.”라고 말했더니, 언니는 꼭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방앗간도 지탁연 사업이기 때문에 지탁연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인지 실제로 해봐야 한다고 했다.

방앗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봉천지역 교사들을 만났는데 “방앗간에서 일한다면서요?”, “일당 얼마예요?”, “떡 많이 먹어요?”, “힘들지 않아요?” 하는 질문을 또 한차례 받았다. “일당이만원이고 힘은 들지만 재미 있어요.” 그랬더니 한 교사가 “나도 거기 가서 일해야겠는데.”했다.

그들과 헤어지고 집에 오면서 ‘그래요, 거기 가서 한 번 일해보세요. 이유가 일당이든 떡이든간에 일을 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거예요. 그 관심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용기종기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든지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간에 “선택 언니, 현관이형, 조만간에 또 찾아갈게요.”



오손도손의 “봄”

나은미 (오손도손어린이집)

오손도손어린이집이 다시금 아이들의 복적됩니다.

기쁜 정이 흠뻑 들었던 아이들이 모

두 이사를 가버린 후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던 우리 어린이집이 교사들의 새 각오와 더불어 봄을 맞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던 행당동 산동네 일대가 작년 3월 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가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우라는 압력에 한 집 두 집 이사를 가고 철거가 되면서 동네의 모습은 삭막해졌고 그래서인지 빈집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상황에 우리 어린이집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여름 이후 아이들 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면서 불안해하는 자모들에게 교사들은 한 아이가 남는다고 해도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겨울이 되었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빈집은 더욱 늘어났으며 우리 아이들도 떠나 갔습니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다시 아이들을 맞은 후, 우리 교사들은 무엇이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우선 한 아이가 남을 때까지 정상운영하려던 방침은 재정마련의 문제, 아이가 잘 놀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철회를 했고 남아있는 자모들과 상의하여 1월 중순까지만 아이들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명의 교사가 그동안 각자의 활동평가를 바탕으로 고민을 한 후, 그 내용을 모아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이사를 가지 않고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세입자대책위원회(이하 ‘세대위’) 회원들의 아이들을 보아야 하는 상

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92년 초부터 이 지역의 공부방 실무자와 우리 교사들이 재개발에 대비한 세입자 모임을 만들었고 이 모임이 1년여의 활동 끝에 93년 3월 세대위로 정식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대위가 우리 교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지역주민을 만나기위해 참여했던 세대위의 통모임, 규찰, 당직, 총회에 나가지 않고 우리 어린이집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교사들은 부업을 해야만 했고 철거투쟁시 방치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 철거시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가에 고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결과로 세대위에 비상시 지역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얼마후 세대위안에 탁아방이 생기면서 세대위와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교사들 모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세대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 우리 어린이집을 싸고 돌았던 많은 소문들 속에서 5년 동안의 이 지역활동을 통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관심을 끄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대위와의 불편해진 관계로 인해 이후 어린이집의 전망을 세우는데 있어 교사들의 생각이 각각이었으며 탁아활동을 계속 하더라도 이 재개발지구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 가졌던 애착만큼 서운함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점은 지금까지 지역활동을 펼쳐왔던 금호, 행당동에 남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활동과 탁아활동의 어느 한쪽에 매몰되기 보다는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또한 우리의 활동무대가 되어야 하고 세대위 회원간에 팽배해져 있는 이기주의와 결과중심의 사고를 그들의 방치되어있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보호, 교육하는 우리의 활동을 바탕으로 자연스레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 속에 다시금 오손도손어린이집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세대위에 회원아이들을 받겠다는 제안을 다시 하였고 전문적이지 못한

아주머니들이 몇차례 아이들을 보며 힘들어 하던 세대위에서 이를 기쁘게 맞았습니다.

하루 하루 늘어나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금 힘을 얻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손도손어린이집은 세대위와 함께 가이주단지에 들어가 계속 활동할 것이며 몇년 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탁아소공간 확보까지 이루어내기 위해 더욱 힘차게 활동할 것입니다.

소식과소식

- 인천 여성노동자대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3월 6일(일)에 인천 부평4동 성당 교육관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인천에서는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인천 여성노동자회와 본회 인천지역위원회, 인천 여성의 전화, 인천 민중연합 여성위원회, 공부방연합회, 노래선언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모성, 인권 보장, 사회적 평등을 여성의 손으로"라는 주제하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노래발표와 일하는 여성의 주장 등과 함께 여성농민회에서 우리쌀 지키기 운동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김지숙씨의 모노 드라마가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며 상연되었고 주최측에서는 '절망의 끝'이라는 연극을 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행사는 대동놀이로 마무리되었는데 '세계여성의 날'의 목표설정에도 맞게 전반적인 행사가 치워졌다는 평이다.

- 구로지역위원회, 구로구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창립총회 가져

인천과 안산, 대전에 이어 서울에도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창립되었다.

구로구는 2월 17일 오후 1시 30분, 11곳의 민간보육시설에서 참가한 가운데 송이어린이집에서 서울시 구로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를 발족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칙을 점검하고 임원단을 선출하였는데 공동회장으로 온누리와 송이어린이집의 원장이 선출되었다.

- 영아탁아소 교사모임 2월 개최

올해 들어서 유아탁아소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대개 16개월~ 18개월 아이부터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탁아소의 변화를 반영하듯 영아탁아모임의 기존의 영아탁아소외에 참가 탁아소가 늘어났다.

영아의 경우 유아와는 달리 탁아소에서 교육중심(제도교육에서 이야기하는)이기보다는 건강, 영양까지 포괄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모임의 논의는 영아의 건강에 관한 내용이 중심논의였다. 지난 달 모임에서 결정된 전체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영아의 건강 교육강좌를 기획했다. 우선 영아의 경우 유아와는 달리 안전사고, 청결 교육보다는 질병예방이 영아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영아의 질병예방과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으로 1994년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6시까지 가정의학과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교육하기로 했다.

영아의 경우 비형식적이고 교육의 내용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접근해 있기에 영아교사의 교사로서의 긴장감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영아탁아의 올바른 상을 제시해주기위해서, 그리고 맡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기위해 영아교사의 적극적인 참가가 요구된다. 유아탁아교사도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회비: 3000원

사 람 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동부 오손도손어린이집에서 수고하시던 조용란씨가 지난 20일 유림회관에서 이무흥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복 바랍니다.

조용란씨는 오손도손어린이집에서 개나리동산어린이집으로 활동의 장을 옮겨 다시 수고하실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3월 일지>

- 2월 17일 구로지역위원회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창립총회
- 3월 3일 서울경인지역 지역대표자회의
- 5일 교육연구부 모임, 영아탁아교사모임,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대표자연대회의
- 6일 인천여성노동자대회(인천지역위원회 참가)
- 7일 동부 오손도손애기방 세대위어린이집으로 개원
- 8일 한국여성대회 1차 실무자회의 참석
- 9일 민자당 정책실 주재, 김종필대표와 여성계 대표자 만찬에 최현숙 회장 참석
- 10일 정책위원회 모임, 조직발전특별위원회 모임, 소식지 "함께 가는 길" 평가회
- 11일 일본 가나카와현 직장노조 부인부에서 본회 방문
- 12일 교육연구부 모임
- 14일 민주당 정책실에서 본회 방문
- 15일 지방 지역대표자회의
- 16일 최현숙 회장, 영유아시설연합회 방문
- 17일 지역대표자회의
- 18일 한국여성대회 2차 실무자회의 참석
- 19일 교육연구부 모임
- 21일 ILO, 본회 방문
- 22일 정책위원회, "함께 가는 길" 편집부 기획회의
- 23일 서울시 보육위원회, 지방 아동분과
- 24일 조직발전특별위원회 모임

*연합회의 정책 등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던 김연명씨(상지대 교수)가 3월 26일(토) 오후 2시에 마포의료보험회관 지하강당에서 백선희씨와 화족을 밝힙니다. 지탁연 모든 식구가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사드립니다.

해송아기둥지에 계시던 박경아씨가 그만 두시고 새롭게 박정숙씨가 교사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박정숙씨와 이제 다른 장을 찾아 떠나시는 박경아씨에게 꾸준한 관심 바랍니다.

◁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신입아동맞이

새학기가 되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웃음과 재잘거리는 소리대신 울음소리와 짜증소리로 가득하다. 아이들이 새로 어린이집에 들어온 것이다. 왜 아이들이 울까?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 하는 습관이 배어버린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이집에 처음 와서 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대신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엄마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 큰 일이다. 항상 자신을 보호해준 따뜻한 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또 엄마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크게 우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집과는 다른 낯선 환경에 혼자 뚝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놀랄 것인가! 조용한 집에서 생활한 아이의 경우 아이들의 소리가 소음으로 들려 귀를 막고 다니기도 한다.

교사는 탁아소 일과가 깨져 버리고, 아이가 며칠째 계속 운다면 교사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도 한다. 피곤은 극도에 달한다.

그러나,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아이에게 아주 중요하다. 탁아소에 제대로 적응 못한 아이는 이후에도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어려워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잘 적응시킬까는 부모와 교사에게 달렸다. 특별히 민감하지 않은 아이라면, 우선 아이의 그 상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인정하면 교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몇달 뒤의 예쁜 모습을 떠올리며 다독거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가 힘든 것은 현재 있는 일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와 떨어져 잠깐 잠깐 쉬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부모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부모, 교사가 어른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이를 탓하기 보다는 아이에 입장에서 어린이집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 부모에게 숨기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아이의 반응을 이야기 해주고 부모도 아이의 반응을 솔직히 이야기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것은 그전부터 다니던 아이들이 자신이 소외되었다거나, 새로운 아이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해진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이다. ★★



▶ 불안한 비디오

"카드로 만든 집"

감독: 마이클 레삭
주연: 캐서린 터너,
타미 리 존스



고고학자였던 아버지를 잃은 셀리는 그 충격으로 자폐증환자가 된다. 딸이 카드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집을 숲속에 지으며 딸의 자폐증을 고치려는 어머니의 사랑 드라마.

정보

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 주소

<서울>

서일전문대학부설 보육교사 양성과정	서울 중랑구 면목4동 47-3 433-0051~9
한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291-1479
중앙승가대학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56, 925-5507
한국어린이 육영회 부설 연수원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2, 424-3033~5
국제어린이교육연수원	서울 구로구 시흥1동 121-8, 806-0093~4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810-2714
기독교방송부설 사회복지교육원	서초구 양재동 114-2, 745-4574
그리스도 신학대학부속 보육교사 훈련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204, 698-8641
동덕여자대학교부설 여성사회교육원내 보육교사훈련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8-1, 913-2001~10
충신보육교사 양성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111, 585-7771~3
서울 Y.M.C.A.	서울 중구 명동1가 1-11, 779-4900
한국평생교육기구부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9-4, 563-8271
평화방송 부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서울 중구 저동1가 2-3, 277-9921
서울찬양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13-2, 579-6213~4
덕성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내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	서울 종로구 운니동 13-2, 765-1846~7
서울 Y.M.C.A.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5-6, 732-8757

<부산>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부산직할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051)512-0311
아카데미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양정3동 3564-5, 051)83-5814

<광주>

송원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 199-1, 062)365-0045
-----------------	-------------------------------------

<대전>

대전실업전문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양성과정	대전직할시 동구 자양동 226-2, 042)629-6105
----------------------------	-------------------------------------

<경기>

경기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032-3, 0331)35-2290~2
-----------------	---

<충북>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부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산 48, 0431)61-2744
------------------------------	------------------------------------

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함께 가는 길” 편집부에서는 비록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여러분의 이후 편의를 위해 교육훈련원의 주소를 전제하니 이용바랍니다. (도움: 삼성보육정보센터, 825-5136)

지자체교육

\$\$ 여성사회교육원 7차 활동가교육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후보, 실무자 교육 참가 안내

여성사회교육원(원장 이효재)에서는 여성후보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결심에서부터 현실적인 준비까지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선거실시 1년여 기간을 앞두고 2차에 걸쳐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후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참가대상

- 여성단체 지도자, 활동가
- 지방의회에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
- 직접 후보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에 뜻을 같이하여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여성

<특히 후보를 내고자 하는 여성단체의 경우 후보자와 사무장급 실무자와 홍보를 담당하거나

책임있는 실무자를 포함하여 한 단체에서 최소 3인 이상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가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4월 8일까지
 - 참가비: 1인당 5만원(여연 소속 단체인 경우 여연에서 반액 부담하기로 했음.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2만5천원)
 - 문의전화: 02)266-0467
 - 기타: 지방에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중 원하시는 분께는 숙박을 제공하니 참가신청을 하실 때 미리 알려주십시오.
 1차교육은 4월 18일(월) - 20일(수), 3일간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출퇴근 가능
 2차교육은 94년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2차교육에 대한 더욱 자세한 프로그램은 추후 발표할 것임.

\$\$ 여성정치상담실주최 지방자치교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부설 [여성정치상담실]은 제1회 지방자치교실을 열었다. [지방자치교실]은 지방자치관련전문가를 강사로 모시고 4월 7일- 6월 16일까지 매주목요일오후 3시-5시까지 10주강좌로 본 연구소에서 있다. 강의신청은 528-1201~3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의료는 5만원.

각 강좌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4.7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5.19	지방경제와 지역개발
4.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구조	5.26	지방행정과 서비스
4.21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6.2	교육자치와 지역문화
1.28	지방선거와 선거전략	6.9	외국의 지방자치사례(독일)
5.12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	6.16	21세기와 지방화시대

연합회 3월 구비자료, 회지 목록

2월에서 3월중에 연합회에 보내주신 단체의 발행물이나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아래에 그 목록을 게재합니다. 연합회 사무실에 오셔서 열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는 아동교육용 내용, 꼭 읽어보세요.)

- * 마음을 살피우는 글읽기 70호 - 어린이도서연구회, 94.3
- * 동화읽는 어른- 어린이도서연구회, 94.3
- * 맞벌이가정을 위한 자녀성교육 - 여성사회교육원
- * 월간 유아- (주)한국유아교육원, 1994.3

어진내 아이들- 인천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1994.1
 인성교육문화신문- 1994.3.1
 건치신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994.2.25
 함께걸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4
 부스러기편지 제88호- 부스러기선교회, 1994.3
 한국YMCA소식- 대한YMCA연맹, 1994.2.3월호
 「말」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1994.3
 아시아 여성노동자 소식- 아시아여성위원회 제작, 1993.10

한국여성연구회 회보- 한국여성연구회, 1994.1
 기독교여성- 기독교민회, 1994.3
 민들레 2호- 박노해 시인 석방추진위원회, 1994.1
 우루과이라운드 이렇게 이겨내자- 경제기획원.공보처, 1994.2

본 연합회에 여러 단체에서 발행물 등의 자료를 보내주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내주신 단체들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하늘어린이집(성남), 해송아기둥지(충북), 마산 토틀이어린이집(마산)의 회지를 받았습니다.

“함께 가는 길” 편집부에서는 앞으로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보육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육관련 교육이나 행사, 자료발간 등의 계획을 가진 여러 보육단체들의 연락과 도움을 기다립니다.

편집부에서

* 지난 신년호가 많은 부족함을 지니고 여러분 앞에 나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쇄사의 실수로 표지 사진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가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간 연합회 재정일을 틈틈히 도와주시던 변미양씨와 꽃동네어린이집의 주혜민씨가 새로 편집부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식구들만큼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월 10일, "함께 가는 길"에 대한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가는 길"이 지탁연의 기관지로 새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가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함께 가는 길"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들을 위해 보육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취급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여러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단체나 개인은 본 연합회 편집부로 연락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화의 의지로 여러분을 찾아갈 지탁연의 기관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 94년 4월호부터는 지난 2월에 귀국하신 인천 최홍국씨(세쌍둥이어린이집)의 '독일탐방기'를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입니다. 다음호를 기다려주세요.

* 자료회원을 신청받습니다.

본 회의 월간 기관지인 "함께 가는 길"을 받아보시길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래 은행구좌를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비는 1년 구독 2만원, 6개월 구독 1만원입니다. 신청하신 자료회원께는 우편으로 기관지를 포함한 신청하신 자료들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은행구좌에 입금하신 후 꼭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회원이 되시는 분께는 본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보육자료물을 회원가에 판매합니다.)

* 기관지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까?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회원어린이집과 자료회원께서는 편집부로 연락주세요. 소식지를 못 받아보신 지역과 어린이집, 기타 회원께서는 연합회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드리겠습니다.

**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 둘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진무진 힘이 솟게 하는 엄청난 사실인가 봅니다.

오늘은 하나여도 내일은 둘이라는, 내일은 둘이라도 모래는 셋이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또하나의 실수투성이 창조물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을 날들을 생각하며 조심스레 내놓는 이 작은 책자가 부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품시장

<행사, 모임>

여성복지확대를 위한 "여성평화알뜰장"

기독교민회는 '94년의 중점사업을 '여성복지를 위한 지역사회선교'로 세우고 이러한 활동에 쓰여질 기금마련을 위하여 여성평화알뜰장 바자회를 개최한다. 또한 당일에 평화를 해치는 어린이들의 무기류 장난감을 '통일웃놀이판'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일정: 1994년 4월 7, 8일(양일간)

장소: 갈릴리교회(구로중학교뒤, 구로6동 우체국 옆. 전화 866-3884)

문의: 자세한 문의는 기독교민회 사무국으로 전화바람

(담당간사 박노숙 865-8090)

세쌍둥이 4주기 추모행사

인천 세쌍둥이 어린이집에서는 90년 세쌍둥이 사건 제4주기를 맞이하여 이를 추모하는 문화행사를 벌인다.

* 인형극(극단 '작은신화', '굴렁쇠')

* 노래공연(노래패 '햇살')

* 풍물공연('꾼')

일시: 94.3.27(일) 오후 2시-4시

장소: 가톨릭회관 대강당(504호)

연락처: 세쌍둥이어린이집 (032) 887-0531

안산 비영리 민간탁아소 이전 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일시: 94.3.30(수) 오후 6시

장소: 안산부페 (안산 중앙역앞 우남빌딩 5층)

<구인, 구직>

- 연합회 아동비디오 시사할 교사 구함

자격: 지탁연 회원 탁아소 교사로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교사에 한함
자세한 문의는 연합회 사무국 교육부장 오윤정씨에게

- 교사구함

성남 새날 아기마을, 봉천동에기방, 오손도손애기방, 구로어린이집
교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탁연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 탁아소를 찾습니다.

봉천동 거주 25세 여성, 가정관리학과 졸. 현재 구로지역 온누리어린이집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음. 빠른 연락을 기대합니다.

<기타>

- 94년 EBS 교육방송 신설 프로그램 안내

어린이극장 - 방송일시: 토) 16:50-17:15 대상: 유아, 국민학생

주요내용: 교육적인 내용의 만화를 통해 어린이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준다.

♥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중구 장충동 1가 38-84, 100-391

TEL. 02) 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뒤은이: 정희연, 주혜민, 김미정, 변미양, 황미혜

펴낸날: 1994년 3월 23일
